

주제 : 번역 투 문장, 제대로 고쳐 쓰자

전자책 출판을 위한 교정 과정에서 필요한
바른 문장 쓰기에 대해 알아봅니다.

튜터 한명씩

번역 투 문장, 제대로 고쳐 쓰자

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문장을 보면 다양한 나라의 단어가 들어 있고, 외국의 문법을 따라 사용 하는 경우도 꽤 있다. 번역 투란 외국어 문체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한국인의 언어습관을 훼손하는 문체를 말한다. 그 예를 다양한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일본어와 영어의 잘못된 번역 투 문장을 몇 가지 살펴보자.

번역 투 문장은 정확한 글쓰기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기에 미리 알고 조심해야 한다.



〈1〉 일본어 번역 투

① ~의

나의 살던 고향 → 내가 살던 고향

저 깊은 산속의 스머프의 집 → 저 깊은 산속에 스머프가 사는 집

② ~경우에는

배가 다시 아플 경우에는 → 배가 다시 아프면/ 배가 다시 아플 때

③ ~에 달하는

수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 → 수천억 원에 이르는 현금

④ ~을/를 요하는

창의력 개발을 요하는 교육 → 창의력을 개발해야 하는 교육

⑤ ~에 있어서

과학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 →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

⑥ '~하고 있다'

우리말에서 '~고 있다'의 형태는 '~한다, ~했다'로 표현하면 된다.

운동을 하고 있다→운동을 한다

텔레비전을 보고 있다→텔레비전을 본다

⑦ 자동사의 피동 표현

우리가 쓰는 문장 중 능동표현을 피동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나 지양해야겠다.

받아들여지다→받아들이다, 생각되다→생각하다, 느껴지다→느끼다

⑧ 이중 피동

한국어에서는 피동 접사 '이, 히, 리, 기'를 사용하여 피동표현을 한다. 또는 '~어지다'로 피동을 표현할 수 있다. 요즘 글을 보면, 피동 접사 '이, 히, 리, 기'와 '어지'가 동시에 사용된 경우가 있다. 이는 일본어 영향을 받은 이중피동 형태의 문장으로 바르지 않다.

닫혀진 약국(×)→닫힌 약국(○) / 잘리어진 나이테(×)→잘린 나이테(○)

〈2〉 영어 번역 투

① ~로부터 (from)

이탈리아로부터 온 명품 → 이탈리아에서 제작한/수입한 명품

② ~로 인해/인한 (by)

과로로 인하여 시력이 약해졌다. → 과로로 시력이 약해졌다

③ ~에 대해/관해 (about)

내가 사랑하는 그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.

→ ‘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’

④ ~을/를 가지다 (have)

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일본 국가대표 축구팀과 경기를 가졌다.

→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일본 국가대표 축구팀과 경기를 했다.

⑤ ~고 있다.

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→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⑥ ~해지기 위해

나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. → ‘나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했다’

⑦ ~에도 불구하고 ‘even though’

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시험에서 떨어졌다.

→ ‘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나는 시험에서 떨어졌다’라고 쓰는 것이 좋다.

⑧ ~에 비하여/비해

작년 중학생 평균 키는 예년에 비해 커졌다.

→ 지난해 중학생 평균키는 예년보다 커졌다

⑨ ~을 필요로 하다

애완동물은 많은 보살핌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.

→ 애완동물에게는 많은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하다.

⑩ 아무리 ~해도 지나치지 않다.

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.

→ 이런 사실은 꼭 알아야 한다.